



베이징올림픽 D-31

-한국, 2회 연속 톱 10 노린다

‘태극남매’美 그린 정벌

앤서니 김 ‘무서운 신예’

3타차 선두 따라잡고 시즌 2승 환호

PGA AT&T 내셔널

재미교포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사진)이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가 빠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가장 빛나는 스타로 자리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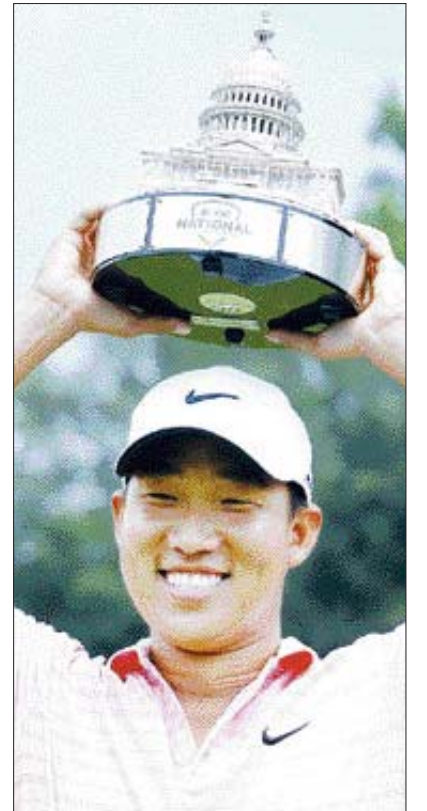
앤서니 김은 7일(한국시간) 메릴랜드주 베데스다 콩그레스널 골프장 블루코스(파70·7천255야드)에서 열린 AT&T 내셔널 최종 라운드에서 5언더파 65타를 몰아쳐 함께 12언더파 268타로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위 프레드릭 아롭슨(스웨덴·10언더파 270타)을 2타차로 따돌린 앤서니 김은 지난 5월 와코비아 챔피언십에서 생애 처음 우승한 이후 두달만에 다시 정상에 오르며 무서운 신예임을 입증해 보였다.

25세 이하의 선수가 한 시즌에 두차례 우승을 차지한 것은 우즈 이후 처음이다. 우즈가 주최한 이 대회에서 108만달러를 가져간 앤서니 김은 미국과 유럽이 골프대항전인 라이더컵 출전 가능성을 높였다. 앤서니 김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라이더컵 순위 6위로 뛰어 올랐다. 앤서니 김은 세계랭킹에서도 톱10 진입을 눈앞에 뒀다. 또한 지난 해 이 대회에서 최경주(38·나이키골프)가 우승한데 이어 다시 한국계 선수가 우승하는 기록도 남겼다.

선두에 3타 뒤진 공동 6위로 4라운드를 출발한 앤서니 김은 보기 없이 버디 5개만을 골라내는 깔끔한 플레이로 손쉬운 역전승을 만들어 냈다.

1번홀(파4)을 기본 좋은 버디로 시작한 앤서니 김은 7번홀(파3)과 9번홀(파5)에서도 1타씩을 즐겼고 이어진 10번



홀(파3)에서도 버디를 잡아냈다. 선두에 5타 뒤진 공동 11위에서 출발한 아롭슨의 추격도 만만치 않았다.

3번홀(파4)에서 2타를 잃어버린 아롭슨은 이후 버디 7개를 쏟아내며 우승을 노렸지만 앤서니 김을 따라 잡지는 못했다. 앤서니 김은 16번홀(파5)에서 1.5m짜리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우승을 확인했다. 앤서니 김은 “우즈의 모든 경기 모습을 지켜보며 성장했다. 그가 주최한 대회에서 우승해 영광이고 너무 흥분된다”고 말했다.

최경주는 타수를 풀이지 못해 함께 이븐파 280타로 공동 49위로 대회를 마쳤다.



7일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인 새도시형상의 '귀자티위칭'(國家體育場) 앞에 성화를 주제로 한 조형물이 설치돼 올림픽 분위기를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금메달 10개 목표 '무한도전'

탁구·배드민턴 등 전략 종목

중국 '흠뻑세' 가장 큰 변수

13억 중국대륙이 100년을 기다렸다는 2008베이징 하계올림픽이 마침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One World, One Dream)'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지구촌 대축제 베이징올림픽은 8월 8일 오후 8시 베이징시 쑤진칭(紫金山) 북쪽 10km 지점에 위치한 메인스타디움 '귀자티위칭'(國家體育場)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갖고 17일간 열전에 들어간다.

1964년 도쿄, 1988년 서울올림픽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올림픽은 중국이 스포츠 최강 미국을 제치고 종합 1위를 노릴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중화민족의 화려한 부활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야심차게 준비했다.

중국 정부와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BOCOG)는 이번 대회를 위해 총 400억달러를 투자했다. 귀자티위칭을 비롯해 12개 경기장을 신축했고 12개 경기장은 증축했으며 선수촌과 메인미디어센터(MPC) 등 45개 올림픽 시설들이 공정을 99%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 200여개국에서 선수 1만500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총 28개 종목에서 302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다. '아시아의 공룡' 중국이 미국을 꺾고 최초로 종합 1위를 노리는 가운데 한국은 금메달 10개를 수확해 2회 연속 종합 10위 진입이 지상목표다. 전통적인 메달밭인 양궁과 태권도에서 각각 2개 이상씩, 펜싱과 레슬링,역도,수영,사



2004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에서 국가별 순위 9위에 올랐던 한국은 베이징에서도 금메달 10개 이상을 따내 2회 연속 톱10을 지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진은 막바지 구슬 땀을 흘리고 있는 태릉선수촌의 대표선수들. /연합뉴스

격,탁구,배드민턴,유도 등에서도 금메달을 바라보고 있다.

특히 세계수영의 '기린아'로 성장한 박태환(단국대)이 내달 베이징에서도 금빛 물살을 가를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전략 종목 중 탁구와 배드민턴, 사격, 역도는 물론 양궁과 태권도에서 주축국 중국의 극심한 견제를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양궁 여자부 박성현(25)과 윤옥희(23), 주현정(26), 남자부 임동현(22), 박경보(33), 이창환(26)으로 구성된 한국 양궁은 올림픽 전초전이 된 월드컵대회에서 순조로운 향해를 해왔다.

태권도 남자부 68kg급 손태진(20)과 80kg 이상급 차동민(22), 여자 57kg급의 임수정(22)과 67kg급 황경선(22) 가운데 차동민과 황경선에게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역도의 금메달 여부는 여자부 장미란(25)과 무상상(중국)의 대결 성사 여부에 달려 있다. 77kg급 강자 이반 스토이츠

프(불가리아)가 도핑 파문으로 인해 이번 올림픽에는 출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 체급의 사재혁(23)과 다른 체급에서도 출전 쿼터에 따라 행운의 금메달을 거머쥘 가능성이 남아 있다.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삼총사 정지현(25·60kg), 박은철(27·55kg), 김민철(25·66kg)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사격에서는 한국 남자권총의 '간판' 진종오(29)가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한국 유도 '황금체급'인 남자 73kg급에서는 '한관승의 사나이' 이원희(27)를 제치고 왕기춘(20)이 출전권을 따냈다.

펜싱 여자플리레 남현희(27)도 금메달 후보다. 빠른 스피드가 돋보이는 남현희는 지난 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월드컵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국제대회 일정을 마친 뒤 연습경기를 중심으로 올림픽까지 컨디션 조절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연합뉴스

라파엘 나달(22·스페인·왼쪽)이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27·스위스·오른쪽)를 꺾고 윌블던테니스대회 남자단식 정상에 우뚝 섰다.



나달은 7일(한국시간) 영국 윌블던 올림피아드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단식 결승에서 페더러를 3-2(6-4 6-4 6(5)-7 6(8)-7 9-7)로 제압하고 이 대회에서 첫 우승의 감격을 맛봤다. 지난 달 프랑스오픈에서 우승했던 나달은 이로써 1980년 비온보리(스웨덴) 이후 처음으로 한 해에 프랑스오픈과 윌블던을 휩쓸었다.

출발부터 운이 따랐다. 1세트 게임스코어 1-1에서 맞선 페더러의 서브 게임이었다.

30-40으로 뒤진 페더러가 나달이 넘긴 공을 받아내기 위해 라켓을 휘둘렀지만 허공만 갈랐다. 좀처럼 보기 힘든 '헛스윙'이 나온 것이다.

페더러는 초반 나달의 서브 게임을 따내며 게임스코어 3-0으로 달아나 이번 대회 처음으로 세트를 뺏긴 분풀이를 하려는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2년 연속 이 대회 결승에

서 페더러에 쫓던 나달의 복수심이 더 강했다. 1-4로 뒤지던 나달은 이후 내리 5게임을 따내며 2세트마저 점수했다.

3세트 게임스코어 5-4로 페더러가 앞선 상황에서 비가 내려 경기가 중단된 것이 페더러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듯 했다.

약 1시간 정도 쉬고 나온 페더러는 경기를 타이브레이크까지 끌고 간 끝에 3세트를 따내며 반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4세트는 더 드라마틱 했다.

역시 타이브레이크까지 간 페더러는 2-5로 뒤져 패색이 짙었으나 극적으로 내리 4포인트를 따내며 기사 희생, 승부를 마지막 세트로 돌렸다.

이선화 '새로운 리더'

18번 홀서 역전 "나도 시즌 2승"

LPGA NW 아칸소챔피언십

'돌부처' 이선화(22·CJ·사진)가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뛰고 있는 '코리언 시스터스'의 새로운 리더로 자리를 잡을 태세다.

이선화는 7일(한국시간) 아칸소주 로저스의 피너클골프장(파72·6천238야드)에서 한국 선수끼리 우승 경쟁을 펼친 P&G뷰티 NW아칸소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3라운드 합계 15언더파 201타로 우승했다.

이선화는 한국 선수 가운데 맨 먼저 시즌 2승을 올렸고 한국 선수 3주 연속 우승이라는 진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지은희(22·힐라코리아)의 웨그먼스 LPGA 우승과 박인비(20·광운대)의 US여자오픈 제패에 이은 한국 선수 3연승은 2006년 여름 4연승 이후 2년 만이다.

시즌 첫 우승 때 9타차를 뒤집었던 이선화는 이날도 짜릿한 마지막 홀 버디로 역전 드라마를 연출했다.

공동 선두 이마나(27·KTF)와 지은희에 1타 뒤진 공동 3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이선화는 퍼팅이 따라 주지 않아 버디 기회를 여러차례 날리며 힘겹게 경기를 끌어내야 했다.

그나마 1번홀(파4) 3m 버디와 7번홀(파5)에서 45야드를 남기고 56도 웨지로 친 세번째 샷이 홀에 빨려 들어간 이 글의 아니었다면 우승 경쟁에서 일찌감치 탈락할 뻔 했다.

백포슨이 14번홀(파5)에서 더블보기



로 자멸한 뒤 우승 경쟁은 이마나와 이선화의 대결로 압축됐다.

이마나는 15번홀(파3)에서 4m 버디를 잡아내며 단독 선두로 올라섰지만 17번홀(파3)에서 3m 짜리 파퍼트를 넣지 못해 다시 공동 선두로 내려앉았다.

이마나에 앞서 경기를 치른 이선화는 16번홀(파4)에서 2m 버디 기회를 살리지 못했지만 18번홀(파5)에서 세번째샷을 1m 옆에 떨어뜨린 버디를 잡아내 단독 선두로 경기를 마쳤다.